

해 설 제주도 상반기 정기인사 무엇을 담았나

민선 8기 기틀 마련·적재적소 인력 배치

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 부여 새로운 바람 유도
50대 중반 국장급 포진... 승진 갈수록 바늘구멍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예고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코로나 19 대응과 민선7기 마무리 및 민선 8기 기틀 마련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주력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인사 규모는 747명(승진 208명, 전보 477명(행정시 교류 95명 포함), 신규 62명)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규모 524명(승진 106, 전보 387(행정시 교류 67 포함), 신규임용31)보다 컸으며 승진 인원도 102명 늘어났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국

북과 민선 8기의 기틀 마련,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뉴딜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고심했다.

특히 기술직렬 배려와 양성평등 균형 인사에 방점을 뒀다. 고촌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양인정 인재개발원장 등 여성 간부공무원 3명을 3급 국장급에 배치하고, 주무과 주무팀장 여성공무원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전진배치했다. 여성을 주무과 주무팀장에 기용함으로써 관리직 여성

공무원 보직 부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하위직 직위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뒀 68명이 8급에서 7급으로, 38명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다. 수의·지적·선박항해·선박기관 등 소수직렬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고려했다.

제주현안 해결에도 고심했다. 당초 부이사관 교육대상자로 분류됐던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을 유임시켰다. 지역경제 회생과 표류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정상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년을 3~5년 남겨두고 있는 50대 중반의 공무원들이 실국

장에 포진해 있어 국장급(부이사관)승진 인사폭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직무대리 국장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국장급 2~3명 정도만 공로연수에 갈 것으로 예상돼 부이사관 승진 인사폭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방형 자리가 증가하면서 승진 인사적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시사 관한대행은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고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배치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특별복권



강지용(사진) 전 자유한국당 제주 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실시된 대통령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위원장은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정부의 이번 특별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강 전 위원장은 조만간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지역 봉사 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대통령-시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18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처음으로 개최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 지방협의회, 관계 중앙부처가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제주시, 빈집 실태조사·정비사업 추진

제주시는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주택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환경을 악화시켜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 모두 20여동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 대상은 주요도로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불량한

빈집이나 청소년 탈선 및 우범지대 조성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또한 철거 후 공용주차장 등 공용의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철거를 원하는 건축주 등 관리자가 철거동의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지 실사를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ee@ihalla.com

바로잡습니다 11일자 1면 제주 2022년도 국비는 신규 사업 국비를 포함한 전체 국비 확보액으로 바로잡습니다.

11일자 1면 제주 2022년도 국비는 신규 사업 국비를 포함한 전체 국비 확보액으로 바로잡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제주 인재 영입 속도 직능 지원단 27명 임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제주 지역선거대책위원회인 ‘제주를 살리는’ 선대위는 10일 제주도당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 제주도지원단(단장 김채규)으로 활동할 2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민선대위원장을 맡은 허창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당 당사에서는 김덕홍 전 조전읍장의 입당식도 진행됐다. 김 전 읍장은 “미력하지만 정권 교체와 제주에서의 승리를 위한 밑일이 되겠다”면서 지방선거에 대해선 “38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로 제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불청객 광생이모자반 수거 작업 11일 제주시 이호태우해수욕장에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제주해상의 불청객인 광생이모자반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 전 법안 처리될까 12월 임시국회 11일 종료... 민주당 2월 임시국회 소집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 논의 ... 선거운동 전 종료 목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월 15일 이전에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원 3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이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1일 2월 임시국회 소집 계획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

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국민께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만큼 2월 국회 논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강화된 방역으로 연말연시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 소집일은 이달 25일 정도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 20여 일 정도 집중적으로 추경과 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달 25일부터 2월 국회를 시작하면 2월 20일까지 회기가 될 것”이라며 “15일 이후가 되면 대선일정과 맞물려서 그 전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1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3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발의됐지만 국회 심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상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의료안내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756-283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게는 위성통신, 작게는 4세대 이동통신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 (가립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753-0404 FAX.751-0045